



1, 3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2 고양시 가로수길 4 원마운트 워터파크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새 단장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의 명물 '노래하는 분수대'가 지난 4월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시는 '2022 고양 세계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와 국제 꽃 박람회인 '2022 화훼산업 대전' 개막일에 맞춰 노래하는 분수대를 개장했다. 세계 3대 분수 중 하나로 꼽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주의 분수대를 본떠 2004년 만든 이 분수대는 한 번에 1천450t의 물을 최고 35m까지 끌어올려 1천655개 노즐로 흘러보낸다.

물과 빛을 이용한 형형색색의 조명과 음악에 맞춰 최대 500가지 형태로 연출되기 때문에 360도 표현과 관람이 가능하다.

시는 조명을 비롯한 관련 시설 노후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고출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하고 인버터 펌프 속도조절기 및 화염 연출 특수장비를 교체한 분수대 광장에는 퍼걸러(그늘 썬터)와 대기환경 시계, 나무 화단, 벤치, 보호매트 등 시민 휴게 시설이 새로 마련됐다.

매년 여름마다 일산 호수공원의 밤을 물과 빛의 향연으로 밝혀주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분수대 공연은 **금요일(오후 8시~8시 30분) 1부, 주말·공휴일(오후 8~9시) 1·2부** 각 20분씩 진행된다. 기상 악화 시 공연은 취소되며 행사 및 대관, 정부 시책으로 인해 운영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분수대 운영 여부, 선곡 및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ys.or.kr/mus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는 아쿠아플라넷, 원마운트, 조각공원, 가로수길, 평화누리길이 자리 잡고 있어 노래하는 분수대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족관과 동물원이 합쳐진 국내 유일 컨버전스 아쿠아리움으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원마운트에서는 식사와 쇼핑, 다양한 이벤트와 스포츠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조각공원에는 고양 국제 야외 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한 작가들이 기증한 작품 등 국제적 조각품들이 설치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노래하는 분수대 야경의 대미를 장식해 주는 가로수길은 그리스 산토리니를 떠오르게 하는 건축 인테리어로 주목받고 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시작하는 평화누리길 5코스는 자연과 함께 도심 산책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기 좋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서 노래하는 분수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음악공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DURATION, GOYANG



2022 Goyang DMZ 평화의 길을 걷다

강화 - 김포 - **고양** - 파주 - 연천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10개 시군 동시 개방 예정

2022년 6월 17일 ~ 10월 31일 개방 예정
1회 20명, 화수목금토 운영
총 29.5 km, 3시간 30분 코스

<https://www.durunubi.kr/dmz-main.do> 웹사이트 예약 및 추첨
DMZ안내센터 1644-1303, 고양시 관광과 031-8075-3403

